선택 아닌 필수…ESG 경영 속도내는 지역 기업들

광주은행,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전환
한전, 4천억 규모 ESG 채권 발행…한전KDN, WE-ESG 이벤트

광주·전남 기업들의 ESG 경영 활동 분야가 세분화·다양화하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기 위한 녹색경영 행보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광주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 181대(휘발유·경유)를 모두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광주은행 노사가 환경부 주관하는 'K-EV 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결정됐다. 'K-EV100' 캠페인은 내연기관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배기가스 등을 저감해 환경을 보호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고자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한 업무용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는다.

광주은행의 업무용 차량인 기아 K5가 한 해 5t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30년부터는 총 905t의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8㎏의 탄소를 흡수한다. 숲 1㏊는 매년 11t의 탄소를 빨아들여 연간 승용차 5.7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광주은행이 차 181대를 모두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11만3000그루 넘는 나무를 심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광주은행은 이날 'K-EV100' 가입 선포식을 열고 전기차 2대를 신규 도입한 뒤 충전시설을 설치했다. 선포식에는 송종욱 은행장과 이성욱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송 행장은 "'K-EV100' 캠페인 참여를 통해 ESG 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지역 소재 기업을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 친환경 경영 및 녹색금융이 전파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ESG팀과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했다. 지난 7월에는 ESG 최고 인증등급을 받은 1000억원 규모 원화 ESG채권을 발행하며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원동력을 얻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공공기관·공기업에게 중요한 경영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는 올 3분기부터 각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알리오에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한국전력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제외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1개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기준 4만1760톤CO_2 eq으로, 전년보다 소폭(0.1%) 증가했다.

11개 기관들은 지난해 기준 배출량 5만8113톤 CO_2 eq 가운데 4만1760톤CO_2 eq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평균 감축률은 28.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25.7%) 보다는 2.4%포인트 증가했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지난해 기준 온실가스감축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5.0%)이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44.0%), 한국농어촌공사(33.6%), 전력거래소(32.2%), 한국콘텐츠진흥원(31.7%), 한전KDN(30.2%), 한전KPS(26.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4.4%), 한국문화예술위원회(1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16.5%) 등 순이었다.

감축률이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농촌경제연구원, 한전KPS,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곳이었다.

한전은 이달 초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원화 ESG 채권을 발행했다. 이로써 한전은 국내 에너지기업 최초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ESG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발행 규모도 2019년 2000억원, 2020년 2000억원, 2021년 4000억으로 늘어났다.

광주은행 송종욱(오른쪽) 은행장과 이성욱 노동조합 위원장이 동구 대인동 본점 전기차 충전시설 앞에서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차로 100% 전환하자는 'K-EV100' 캠페인을 선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전력그룹사 한전KDN은 17일부터 오는 12월5일까지 '대국민 WE-ESG 이벤트'를 홈페이지(kdn.com)를 통해 진행한다. 올해 한전KDN은 '깨끗한 에너지, 따뜻한 ICT기술, 신뢰받는 한전KDN' ESG 경영전략을 내걸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광주 14.6%·전남 9.0%…전국 평균보다 낮아

통계청 사회조사…"재택근무 효율적" 광주 58.6%·전남 49.7%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한 비중은 광주 14.6%·전남 9.0%로, 전국 평균(16.6%)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담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한 사람은 광주 14.6%·전남 9.0%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비중은 16.6%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다는 답변률은 광주 87.6%·전남 78.3%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비중은 85.9%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광주에서 재택근무를 한 여성 비중은 16.3%로, 남성(13.2%) 보다 3.1%포인트 많았다. 전남은 남성 9.5%·여성 8.3%로, 남성 재택근무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일했다는 비중도 광주는 여성(88.9%)이 남성(86.3%)보다 많았다. 반면 전남은 남성(79.1%)이 여성(77.0%) 보다 높았다. 재택근무가 효율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국 평균 56.8%였고, 광주 58.6%·전남 49.7%로 나타났다.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여긴 주된 이유는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가 절반 이상(광주 51.7%·전남 52.1%)을 차지했다.

통계청은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12~27일 조사를 벌였다. 광주에서는 732가구, 전남은 107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성경제인협 광주지회, 일상회복지원금 추진 촉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가 광주시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계획'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지회는 17일 '광주시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계획 추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모든 광주 시민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하루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광주지회 측은 "1인당 10만원, 총 1500억원에 가까운 지역화폐가 골목 곳곳에서 사용된다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효한 정책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148만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에 따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와 우리 시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시민들의 희생은 선별할 수 없기에 광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길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코스피 상장사 3분기 누적 순이익·영업이익·매출 역대 최대

코스피 상장사들이 코로나19에도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과 영업이익, 매출이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1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86곳(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1~3분기 순이익이 128조104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8조1885억원)보다 165.84% 늘어났다.

올해 1~3분기 순이익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처음 100조원을 넘었고 종전 최고였던 2018년(96조원)보다 32조원 많았다.

매출액은 1650조9321억원으로 18.0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43조2403억원으로 전 같은 기간보다 88.19% 늘어났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특히 시장에서 비중이 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코스피 상장사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들 상장사의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05조473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9조1659억원)의 두 배를 넘겼다. 매출도 1447조8929억원으로 18.34% 늘어났고 순이익은 28조3878억원에서 99조354억원으로 불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달러 강세 부담 속에 전 거래일보다 34.79포인트(1.16%) 내린 2962.42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하락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62.42 (-34.79)
↓	코스닥	1031.26 (-4.20)
↑	금리 (국고채 3년)	1.974 (+0.011)
↑	환율 (USD)	1182.50 (+2.60)

한전KPS, 허상국 신임 발전전력사업본부장 선임

한전KPS는 허상국(58·사진) 신임 발전전력사업본부장(상임이사)이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허 본부장은 지난 1986년 한전KPS에 입사해 신고리1 사업소 기술실장, 한울2사업소장을 거쳐 총무처장과 품질경영실장 등을 역임했다.

국가사회발전 기여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는 등 다수 수상 경력이 있다. 요직을 거치며 경영관리 및 정비 품질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허 본부장은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며 고객가치 창출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역량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정기 인사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